

이른 장마에 ... 제습기 불티

G마켓 전년보다 매출 529%·이마트 1141% 늘어

광주업체 DK산업 '디에페' 올 3만대 판매 목표

이른 장마 소식에 제습기 시장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 제습기 업체는 준비 물량이 사전에 소진될 가능성까지 전망할 정도로 제습기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광주의 중견기업인 DK산업이 내놓은 '디에페' 제습기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은 지난 7~13일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마트도 9~15일 제습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41%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습기 제조사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제습기 1위 브랜드 워닉스는 지난해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으며 LG전자도 이달 들어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초여름 소형 가전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습기의 주 판매처는 주부들을 타깃으로 한 TV홈쇼핑이다. 워닉스 제습기는 13일 롯데홈쇼핑에서 하루에 9000대 이상 팔려나갔다. 같은 날 GS홈쇼핑에서 판매방송을 진행한 LG전자도 5000대를 판매하며 조기에 매진됐다.

20여 브랜드가 진출한 제습기 시장에서 광주 평동산단의 하이테크 제품 제조기업 DK산업(회장 김보곤)이 출시한 '디에페' 제습기도 인기를 끌



6L 용량의 디에페 가정용 제습기

고 있다. 디에페는 '지중해의 쾌적한 바람'이라는 뜻. 지난해 8월 첫 출시해 현재 대형마트와 전자양판점, 온라인 마켓에 진출한 디에페 제습기는 성수기를 맞으면서 꾸준한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직접 제조돼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청정 기능과 저소음이 특징이다. DK산업 관계자는 "제습기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세균과 곰팡이 등 유해한 물질 억제에 효과를 발휘한다"며 "앞선 기술력으로 대기업 브랜드 틈바구니에서 올해 3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습기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성장한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용량 및 여러 복합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도 늘어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제습기는 6월 말이 돼 성수기를 맞았는데,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가 길어지면서 사 이클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32년 만에 중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대도시 위주로 제습기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은행들, 비과세 끝난 장마저축 환급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주요 은행만 30억 달해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길게는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 기존 고객 가운데 올해 이런 계약조건을 바꾼 고객이 있다면 계약 변경에 따라 더 낸 돈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장마저축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같은 계좌의 예금상품 안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중인 규모만 30억원(약 2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때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필뉴스

서랍속 동전 3960만개 '세상 밖으로'

광주·전남서 5월 한달간 61억원 어치 지폐 교환

광주·전남에서만 3960만개 동전이 '세상 밖으로' 나와 45억원 상당의 발행비용 절감효과를 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내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과 공동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범국민 동전교환운동'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3960만개(61억5000만원어치)의 동전이 지폐로 교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반인들의 참여로 지난해에 비해 교환장수는 690만개(21.1%), 교환금액은 14억3000만원(30.2%)이 증가한 규모다.

주화종류별로 보면 100원화가 2440만개(전체 교환개수의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0원화 700만개(17.6%), 10원화 480만개(12.1%), 50원화 350만개(8.8%)의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번 동전교환운동으로 환수한 동전규모는 2012년 중 광주·전남 지역 동전 발행량(9660만장)의 약 4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를 통해 약 45억원의 화폐제조비용을 절감했다고 함은 밝혔다.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기간에 우리 지역 내에서 기부 용도로 모금된 자투리 동전은 860만원으로 전년(650만원)보다 32.3% 증가했으며 각 금융기관은 이를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패션우산 인기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집합매장에 예쁜 디자인의 패션우산이 선보였다. '메트로시티'와 '도플러' 등의 패션우산은 가격이 2만5000원부터 5만5000원까지로 다양하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한국 근로시간 8년후 OECD보다 짧아질 듯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빠른 속도로 단축되면서 8년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 연구실장은 18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서 "전체 취업자의 실근로

시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8시간(1.65%)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당시 2512시간이었던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2011년에는 2090시간으로 줄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실근로시간이 2000년 1844시간에서 2011년 1776시간으로 연평균 0.

34%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1980년대 유럽에서도 근로시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독일 1.03%, 프랑스 0.87%, 네덜란드 0.6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근로시간은 과거 유럽 등 선진국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1년에는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 근로시간(1714.2시간)보다 7.8시간 짧은 1706.4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변 실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과 높은 연장근로수당, 노동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정착했는데 최근 정치권이 이런 배경을 따지지 않은채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필뉴스

신용카드 실적 증가율

5월 3.6%... 을 최저치

5월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카드승인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했다. 이는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월(3.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2.4%에 그쳐 전체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2월의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2.7%)보다도 낮았다.

5월 전체카드 승인금액 46조6000억원에 대한 카드 종류별 승인금액의 비중은 신용카드가 82.9%(38조6000억원), 체크카드가 16.8%(7조8000억원)를 차지했다. /연필뉴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안도 구들장 논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이 18일 안도군 청산면 양지리 일대 구들장 논을 현장 방문했다. <사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은 물빠짐이 심한 타밭에 설치해 논의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계구조물로 오랜 농업역사 비중은 82.9%(38조6000억원), 체크카드가 16.8%(7조8000억원)를 차지했다. /연필뉴스

지원하고 전통농업유산보전을 위한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통해 훼손된 구들장 논의 정비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구들장논은 산중턱이나 산등성이 밑까지 기존의 자연지형을 변형해 조성한 독특한 구조물로서 그 가치가 높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선조들의 소중한 농업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교육! 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

모집기간 현재접수 중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사진 1매)
문의처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1023

KWANGSH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과정명	강사명	교육시간	주	수강료(원)	비고
다문화상담사 6. 13(목) 개강	김성구	목 19:00~22:00	10주	200,000원	다문화상담사/다문화교육사 2급 동시 취득
진로코칭 7. 1(월) 개강	박성균	월 9:00~18:00	4주	300,000원	에너지그림기본/심학 자격취득
스포츠마사지1급 7. 1(월) 개강	정상호	월·목 19:00~22:00	4주	150,000원	스포츠마사지1급
공동체훈련(팀빌딩) 7. 4(목) 개강	김은식	목 19:00~22:00	1일	30,000원 (재료비포함)	

※ 자격검증비, 재료비, 교재비는 각 과정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을 위해 꿈과 재능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 소로 36 www.kwangshin.ac.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